신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개소

팔금면에 6,443㎡ …5명과 3년간 임대차 계약

고온극복 스마트온실 1동·내재해형 하우스 3동

1004섬 신안 팔금면에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문을 열었다.

총 6,443㎡의 면적에 고온극복형 스마트온실 1동과 내재해형 하우스 3동을 조성하였으며, 만 20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 5명의 청년농업인과 3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 농업 운영 경험 및 영농 기술 등 영농 창업 전반을 기술지도하여 청년농업인이 영농 창업 후 실패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및 임대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도비 7억 8천만원, 군비 14억 2천만원 총 2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팔금면에 딸기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였다.

이번에 개소하게 된 신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에서는 5명의 청년농업인이 올해 9월 총 43,000주의 딸기묘를 식재하여 재배중에 있으며 12월 초순부터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3,230㎡ 규모로 조성한 고온극복형 스마트온실은 동고 11.5m로 건물 4층 높이의 큰 규모의 온실인데, 이는 식물의 적정 생육 온도를 조절하여 고온 피해를 경감하고 사계절 작물의 생산이 가능하게끔 한 혁신적인 시설이다.

고온극복형 스마트온실은 시설 내부의 공기 순환이 원활한 커다란 내부용적과 더불어서,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은박지 형태의 차광망과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팬, 안개 분사 시스템 등 각종 온도 저감 장치를 활용하여 시설 내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서, 그동안 여름철에 재배가 힘들었던 작물도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딸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겨울 재배가 보편화 되어 12월부터 3월까지 일부 계절만이 딸기 제철이었으며, 일부 여름딸기의 경우 그 품질이 겨울철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고온극복형 스마트온실의 경우 시설 내 환경 조절에 의하여 연중 고품질 딸기의 생산이 가능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기존의 생산 위주의 관행적 농업에서 탈피하여 생산·유통·가공·체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할 계획이며, 대규모 원예작물 단지를 조성하여, 딸기 뿐만아니라 바나나, 커피, 망고가 신안군의 새로운 특산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코로나 확산 방지·청소년 보호

영암군, 청소년유해 환경 지도 점검 실시

영암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주변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집중 점검은 12월 18일 현재 5회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위반행위,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위반 단속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계도 활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편의점,PC방 등)의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도 점검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전남도 주관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함평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 '2020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시상금 4백만 원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성 주류화 장려 등 양성평등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올해 평가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확보 ▲여성 관리직 확대 ▲양성평등 우수사례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함평군은 소속 공무원 89%가 성인지 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군정 전반에 걸친 정책 개선 실적을 이룬 것이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법령 73개, 사업 29개, 중장기계획 1건 등 총 105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9건의 양성평등 개선안을 도출하면서 지난 2017~18년에 이어 또 다시 양성평등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전문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해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실행과 차별없는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군, '깨끗한 축산농장' 선도하다

올해 16농가 신청해 14농가 추가…2곳도 내년 상반기 심사

무안군은 축사와 주변 경관이 조화되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만들고 악취 개선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농장이다.

이에 무안군은 2018년부터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37농가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16농가가 신청하여 그 중 한육우 6농가, 돼지 6농가, 닭 2농가로 총 14농가가 지정되었으며, 미 지정 2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연중신청 가능하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설치, 농장 조경, 축사청결상태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한다. 이중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향후 5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지정농가에 대해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와 농장안내판(인증현판)이 제공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악취 저감 시설 등 축산업 관련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대상 자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무안군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악취저감 시설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 83억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자원봉사센터, 전라남도 시·군평가 최우수상 수상

2000년부터 직영 운영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주력

목포시자원봉사센터가 2020년 전라남도 주관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센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목포시는 지난 2000년부터 센터를 직영 운영하며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자의 발굴· 육성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재능기부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주력하여 왔다.

목포 지역에는 현재 연간 58,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하여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현장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이 두드러졌다.

주요 활동은 코로나19 대응 및 수해복구 활동으로 면 마스크 제작 배부, 집중호우 해안쓰레기 수거, 수해피해지역 인력 및 물품 지원,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을 적극 추진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농협~학정교차로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영광군은 내년 1월부터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 인도정비 구간에 설치된 주·정차 위반 CCTV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시한 인도정비 사업을 통해 마련된 주차공간의 장기주차 방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연중무휴 09시~18시, 단속구간은 군청사거리부터 영광읍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이다. 또한, 조성된 주차공간에는 90분간 주차가 허용되며,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부근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은 즉시 단속된다.

군은 이번 단속에 앞서 군민들의 사전인지 및 홍보를 위해 단속 구간 내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계도장을 발부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